

#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김 현 선

## <차 례>

1. 머리말
2. 제주도 본풀이 공시적 유형의 통시적 위상 점검  
: 창세서사시의 변주
3. 한국 구전서사시의 시기 구분
4. 한국 구전서사시의 질적 비약
5. 마무리

## 1. 머리말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가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기록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구전문학의 역사적 전개를 규명하는 일이 난제에 해당하듯이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전문학을 포함해서 구전문화적 현상은 기억에 의한 전승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전승성의 지속성을 내세워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구전문화의 지속성은 미세하게나마 이미 그 자체로 변화성을 근거로 삼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구전문화는 그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지속과 변화를 축으로 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는 구전서사시의 지속과 변화라는 두 층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구전서사시의 전개가 지속과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구전서

---

\* 이 논문은 1997년도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는 진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전서사시의 갈래가 다양하고 구전서사시의 종류가 다채로우니 구전서사시 전반을 다루는 일부터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구전서사시의 대표적 갈래인 서사무가, 서사민요, 판소리는 쉽사리 그 성격과 특징을 변별할 수 있다. 서사민요와 판소리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다루어지는 사건 또한 일상적 생활을 소재로 삼고 있으므로 서사무가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서사무가의 주인공은 신이고, 경우에 따라서 신이면서 인간이고, 더 나아가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무가가 가장 까다로운 대상이다. 서사무가는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많은 역사적 정보량을 가진 퇴적층에 해당한다.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공식적 서사무가의 잔상을 집결해 보면 그 퇴적적 단층 속에서 시기적 선후를 규명할 수 있는 빌미를 찾을 수 있다. 서사무가가 지역적 차이, 제의적 성격에 따른 차이, 동일 지역 내에서 어느 신격에 대한 연행물인가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집중적으로 해명되어야 서사무가의 복합적 층위를 일거에 명료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작업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까지 서사무가를 무속서사시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다행스럽게 서사무가를 위시해서 구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에 주목한 일련의 논저가 있어서 본고의 문제의식을 가다듬는데 유효한 지침을 제공한다.<sup>1)</sup> 조동일교수의 논의의 핵심은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서사무가, 서사민요, 판소리라는 구비서사시의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면서 아울러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문학사적 관점에서 착안하고 파악해서 고대서사시, 중세서사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서사시 등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조동일교수의 문학사관에 근거한 것이므로 자체의 학문적 정합성을 지닌다. 같은 체계를 토대로 세계적 서사시의 분포와 변이를 통해서 동시대적 전체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세계 사례의 증거를 대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에서는 한층 더 예각화된 학문적 정합성을 꾀해서 구비서사시의 시기 구분과 전세계적 사례를 구실삼아 구비서사시 이론을 밀

1) 조동일, "8.14. 서사무가에서 판소리게 소설까지," 『제3판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1994.

조동일, "장편서사시의 분포와 변천," 『제2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미간행 유인물, 1997년 간행 예정.

도 있게 전개한다.

조동일교수가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에서 제기한 시대 구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1. 신의 이야기
  - 1.1. 신앙서사시
  - 1.2. 창세서사시
2. 영웅의 이야기
  - 2.1. 여성영웅서사시
  - 2.2. 남성영웅서사시
3. 범인의 이야기
  - 3.1. 신앙비판서사시
  - 3.2. 성자서사시
  - 3.3. 생활서사시

조동일교수의 시대 구분은 두 가지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는 인물의 능력과 행적에 따른 역사적 전개를 추정한 것이다. 이 근거는 조동일교수의 설화 유형 분류에서 세운 전례를 충실하게 계승했으면서도<sup>3)</sup> 인물의 질적 등급의 차이에 따라 주인공의 차이를 규명한 노드럽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를 연상하게 한다.<sup>4)</sup> 주인공이 어느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 영웅, 범인 등으로 구분했다. 둘째는 서사시가 어떠한 시대의 환경이나 내용을 담았는가에 따라서 하위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두 가지 근거를 조합해서 1은 원시서사시, 2는 고대서사시, 3은 중세서사시 등으로 시대 구분을 하였다.

조동일교수의 서사시 시대 구분은 본고의 전개에 매우 고무적인 지침이 된다. 본고는 조동일교수의 논의에 대해서 대국면에서는 그 논지를 충실하게 따르기로 하겠

2) 조동일, 같은책, 23면.

3) 조동일 외,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에서 4단위까지 구분한 예사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거나 모자라는 인물, 예사사람보다 조금 뛰어 나거나 모자란 인물, 보통사람 등의 구분이 이에 적절한 사례이다.

4) 노드럽 프라이(임철규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49~51면.

프라이가 서사양식에서 신화, 로맨스, 상위모방, 하위모방, 아이러니 양식의 인물로 구분한 것과 상통한다.

다. 그러나 소국면과 몇 가지 관점에서 조동일교수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새롭게 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 위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작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무가의 경우 공시적 유형에 대해 확실하게 점검하여 통시적 위상의 교체가 이룩된 잔존물임을 힘써 강조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공시적 자료는 통시적 위상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또한 통시적 전환의 흔적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서사무가 가운데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는 본풀이의 대국면적 차원에서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구전서사시의 지속과 변화라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되는 현상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명된 바 없다. 예컨대 <천지왕본풀이> <서흥리본향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은 서로 불가분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자료인데도, 조동일교수의 분석에서는 세 자료가 각기 1.2, 1.1, 2.1/3.2 등으로 배분되어 있으므로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해서 적절한 반론과 예증을 펴기로 하겠다.

둘째, 서사시라는 구비율문적 조건과 이야기라는 구비산문적 내용이 어떻게 결합되면서 구비산문의 질적 변이가 구전서사시와 함께 나란히 가면서 교체되었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서사시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원천을 두루 활용하면서 견고한 외적 연행형식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집단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형식이다. 서사시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지속된다. 그러나 서사시에 관계되는 내용물인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위시한 갖가지 내용물은 아무 것이나 대체될 수 있는 가변적 변화성을 전제한다. 심지어 서사시에는 소설적 내용까지도 담겨지곤 한다. 이 점이 서사무가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되고, 서사민요와 판소리에서까지 증명된다면 구전서사시의 전개에 대한 일정한 가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사시의 경우에 각 시기별 이행기적 증후를 뚜렷하게 지닌 증좌가 있어서 서사시의 교체는 몇 단계에 걸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겠고, 중세종교인 불교의 전래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이 자세하게 증명되어야 하겠다.

셋째, 구전서사시는 평범한 단면적 지속과 변화로만 그 전개를 일관하지는 않았다. 구전서사시의 역사에서 서사민요와 판소리의 등장은 대단히 주목되는 현상이데, 그 가운데서도 판소리의 출현은 구전서사시의 질적 비약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판소리의 예술적 성취는 문학적·음악적·연극적 비약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했는

데, 구전서사시의 역사상 거의 동일하게 답습되던 현상을 일거에 변혁한 것이 바로 판소리이다. 음악적 세련도는 세계서사시의 유례없는 결과를 낳았으나 문학적 이면과 음악적 이면이 만나서 이룩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판소리의 총체적 비약은 구전서사시의 종래 전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구전서사시의 전체 전개사에서 살펴야 그 빛나는 성취와 한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논의되어야 하겠다.

본고는 필자의 연구 방향에 의해서 이룩되는 구전서사시의 일련 논문 가운데 하나이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존의 논문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논증되었다고 하는 논지는 인용되는 논문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선명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구전서사시의 저변에 놓인 화석의 지층을 언급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유물이나 예술사 관련 논의는 인용을 생략한 채 그 핵심적 내용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 2. 제주도 본풀이 공시적 유형의 통시적 위상 점검 : 창세서사시의 변주

서사무가는 무속서사시이기 때문에 제의적 연행성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서사무가의 내용이 제 아무리 황당한 것이라 해도 무당의 개인적 특이한 변이가 아니라면 서사시적 제약성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서사무가의 변이 유형은 서사무가의 통시적 전개를 점검할 수 있는 유력한 척도가 된다. 구전문학 연구에서 유형과 각편의 연구가 일정한 가치가 있듯이 서사시적 제약성이 따르는 서사무가의 연구에서도 이 개념은 대단히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갈래마다 성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제주도의 서사무가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본풀이를 다루고자 한다.

5) 김현선, “한국구전서사시의 판도와 원리,” 1996년 8월 16일 한국구비문학회 하계발표요지.  
김현선, “동아시아 무속서사시 비교연구,” 제3회 동아시아학술대회 - 『한국학과 생활문화』, 경기대학교, 1996년 9월 17일.  
김현선, “판소리의 역사적 연구,” 1997년도 한국구비문학회 동계발표회, 1997년 2월 13일.

- (가) 천지왕본풀이
- (나) 서귀포본향본풀이
- (다) 삼승할망본풀이
- (라) 허웅애기본풀이

(가)는 천부지모의 결합에 의한 인세시조출생이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가)에 대한 신화적 분석은 한 차례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그 쪽으로 미룬다.<sup>6)</sup> <천지왕본풀이>는 <초감제>라는 제차에서 연행되는 곳의 서두 구실을 한다. 천지창조에 이어서 천지에 생긴 혼돈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세의 시조를 결정짓는 대목이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내용이 된다. 특히 인세시조인 대별왕과 소별왕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소별왕이 사술을 써서 이 세상을 차지한 결과 이승과 저승의 분열이 생기고 이승에 혼란과 악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가)는 창세서사시의 기본적 유형 내지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당신본풀이이다. 서귀포의 동흥리와 서흥리에서 전승되는 당신본향본풀이이다. 이들 본풀이는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모두 8편의 각편이 존재한다.<sup>7)</sup> 이 서사시는 고산국과 지산국 및 바람웃도 바람운님 사이에 생긴 삼각 갈등을 축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삼각 갈등은 일문관 바람운님이라는 남성을 두고 고산국과 지산국이라는 자매가 벌이는 갈등이다. 이 갈등은 인간에 의해서 중재되지만, 바람운님과 지산국이 김봉태를 위시한 문섬 북쪽 상·하서귀 마을에 의해서 배향되고, 다른쪽 서흥리 마을을 차지한 고산국 신격과 두 마을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서사시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판단된다.<sup>8)</sup> 신과 인간, 신의 권능과 마을의 배분 따위가 핵심적으로 거론된 서사시이다.

(다)는 산육신인 삼승할망의 내력을 밝혀주는 일반신본풀이이다. 이 서사시는 불

6)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85~132면.

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0.

현용준, 『제주도무속본풀이사전』, 신구문화사, 1980.

아끼바 외, 『조선무속의 연구』(상), 조선총독부, 1937.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자료편, 금화사(동경), 1973.

진성기 자료에 5편, 현용준 자료에 1편, 아끼바 자료에 1편, 장주근 자료에 1편 도합 8편이 채록되었다. 이 밖에 더 있을 지 모르나 확인하지 못했다.

8) 이에 대한 신화적 고찰은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김화경,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구조분석,”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 12.

도맡이나 삼승할망에게 축원하는 할망비념에서 연행되는 것이 예사이다. (다)의 핵심적 화소는 동해용왕 따님아기와 명진국 따님아기가 꽃 피우기 경쟁을 하여서 명진국 따님아기가 마침내 삼승할망으로 자리잡아 이승의 삼승할망인 생불왕이 되고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저승의 생불왕이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아기 생명을 관장하는 신들의 다툼이 두드러지고, 인간의 탄생과 신의 관장, 인간의 성장과 병의 침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화적 골격이 두드러진다.

(라)는 진성기에 의해서 채록된 자료이다. (라)는 특수본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연유로 특수본풀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명된 것인지 그 용어나 분류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라)를 구송한 강을생이라는 무녀가 대단히 긴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자료의 신뢰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이 서사시의 핵심적 화소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가족과 저승의 살림을 도맡아서 진행하던 신격이 이승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연이 이처럼 기술되어 있다.

(가)·(나)·(다)·(라)는 제각기 다른 서사무가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조건이 뚜렷하게 전제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왜 이러한 공통적 전제가 필요했는지 현재로서는 판별하기 어렵다. 분석자의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는 공시적 유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문면의 검토를 통해서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가지 서사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뚜렷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가)인 천지왕본풀이다.

(가)의 천지왕본풀이에서 주요한 신화소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논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소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핵심적 화소만 간추려 제시한다.

- (1) 천부지모의 결합
- (2) 아들의 부친 탐색
- (3) 해와 달의 조정
- (4) 인세차지경쟁

(1) 천부지모의 결합은 천지왕과 총명부인이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천지왕이

우주적 혼돈을 정립하기 위해서 꿈을 얻고서 지상에 하강해서 총명부인과 결합한다. 우주적 혼돈은 자신이 창출하지만 해결책의 모색은 지상에 있다고 믿는 관념이 흥미롭다.

(2) 아들의 부친 탐색은 지상에서 얻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고자 하는 신화소이다.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가 부친을 찾아서 부친과 다르게 다시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신화적 설정이 돋보인다. 이러한 신화소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위시해서 지상에 머물던 존재자가 하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우주천문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흔하게 등장하는 신화소라 할 수 있다.

(3)은 (2)에 이어서 우주적 혼돈의 정립과정이다. 해와 달이 오늘날과 같은 상태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구실삼아 하늘에 없거나 두 개가 있는 일월의 조정이 신화소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3)과 같은 신화소는 세계신화에서 흔하게 등장하는데, 서사시에 깊은 자취를 끼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창세서사시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화소이다.

(4) 인세차지경쟁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담이다. 천지왕이 대별왕에게 이승을 소별왕에게 저승을 각기 다스리도록 했으나, 소별왕이 이승을 탐내서 이승의 통치권을 빼앗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자 부여된 판도를 거부하고 더 좋다고 판단되는 이승에 욕심을 내는 것이 경쟁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본래 부여된 신직을 속임수로 해서 빼앗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신화소이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이 신화소의 핵심 부위라고 하겠다. 신의 잘못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가)는 우주적 혼돈, 혼돈의 정립, 정립과정에서 발생된 주체의 전도 등이 핵심적 신화소라 하겠다. 천지개벽의 최초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인(天地人)의 모든 층위에 걸쳐서 다층위적으로 관련되는 서사시가 곧 천지왕본풀이이다.

(나) 서귀포본향본풀이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사시이나 최초로 설정된 제주도의 혼돈을 해결하기 위한 신화적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도의 남쪽 서귀포는 안개가 잦고 바람이 세며 위치에 따라서 지질이나 영토가 달라지는 특색이 있다. 동홍리와 상·하서귀의 지역적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남녀의 삼각 갈등을 통해서 꺾진하게 묘사된다.

서귀포본향본풀이는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와는 다르게 당신본풀이의 전형적 공



식을 따른다. 당신본풀이의 일반적 공식은 제주도에 거처하는 남신 또는 여신이 있다가, 외지에서 도래한 여신 또는 남신과 결연하는 것이다. 서귀본향본풀이는 바람 옷또 바람운님이 외지에서 몰려와 고산국과 결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삼성신화>의 남여신 결합과는 반대로 되어 있어서 뒤집힌 설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각편 8가지는 좀 색다른 설정이 이루어져 있다. 외지에서 도래한 바람운님이 고산국과 인연을 맺는 것이 그 하나이고, 이외는 다르게 바람운님이 중국에서 고산국과 결연했다가 다시금 지산국과 눈이 맞아서 함께 제주도로 도망한 변이형이 존재한다.<sup>9)</sup> 전자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혼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퀘웨깃도본풀이>의 변형에 해당한다. 서귀본향본풀이는 크게 본다면, <삼성신화>나 <퀘웨깃도본풀이>의 변이형에 해당한다.

이 서사시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서사시가 가정하고 있는 시공간의 설정이다. 바람운님과 지산국이 고산국에게 쫓겨 한라산에 숨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대목에서 이 서사시가 설정하는 시공간의 징표를 찾을 수 있다. 그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라영산 들어와 보니, 천지가 캄캄하니  
하늘과 땅이 갑갑하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구상나무를 꺾어 층암절벽에 꽂아놓으니  
천왕닭이 목을 꺾고, 지왕닭이 날개를 벌려서  
계명닭 소리가 나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남쪽으로 바라다보니 바다도 보이고  
바람운님이 화살 두 개를 해서  
활을 쏘아 살오름 꼭대기로 시위를 떨어뜨리고  
부인은 뽕개를 치니  
살오름 동산에 가서 떨어졌습니다.<sup>10)</sup>

인용한 대목은 바람운님과 지산국이 한라산에 거처하면서 생긴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천지개벽의 순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감제>나 <천지왕본풀이>에서 우주개벽의 순간을 묘사할 때에 흔히 등장하는 공식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서귀본향당본풀이>에 왜 천지개벽의 광경이 삽입되어 있는 것인가 의문

9) 조동일, 같은책, 23-26면, 조동일교수는 이와 같은 변이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10) 진성기, 같은책, 497면. 현대역은 조동일 교수의 것을 다소 가다듬었다.

을 제기할 만하다.

그것은 고산국, 지산국, 바람운님이라는 신화적 설정이 제주도의 우주 천문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람운님은 풍신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활로써 신적인 권능을 보장받는 영웅신적 면모가 깃들여 있다. 바람운님은 곧 구름과 관계된 풍신이면서 영웅신적 면모가 있는 신격인 것이다. 지산국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개신 내지는 구름신에 가까운 모습을 지닌 신격이다. 반면에 고산국은 바람운님과 성격이 흡사한 신의 면모를 지닌다. 고산국의 외모를 보여주는 문면은 다음과 같다.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대목을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

큰부인은 이튿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천기운간의 별자리를 보니  
 “이런 역적이 어디 있으랴  
 내서방이 내 동생을 유인하고 도망쳤구나”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여성의복을 벗어두고 남성의복 좃어입고  
 친근들이 무쇠활 백근들의 무쇠살  
 둘러받고 옥황에 축수를 했다.<sup>11)</sup>

고산국의 신격은 뚜렷하지 않으나 남성 의복과 활과 시위를 갖추는 것에서 영웅신적 면모를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된다. 고산국의 신격적 면모는 바람운님의 신격과 겹쳐져 있다.

서귀본향본풀이는 삼각 갈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원적 대립에서 비롯된 삼각 갈등이다. 본질적 갈등은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이 쟁패를 하듯이 고산국과 바람운님의 갈등이 핵심적 사항을 이룬다.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가 우주의 혼돈을 정립하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해와 달을 정리하는 것처럼 바람운님과 고산국은 그러한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동시에 고산국과 지산국의 갈등이 함께 제시된다. 지산국은 바람운님과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산국과 대립된다. 바람, 안개, 구름은 한라산의 중심에서 살오름을 중심으로 다시 지역적 배분과 대결에 의해서 서흥리 //~동흥리(상·하서귀)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이들의

11) 진성기, 같은책, 502면.

대립이 고산국과 지산국에 의해서 구현되는데, 선·처·추·뽕개 //~악·첩·미·안개 등의 대립적 변별자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12)</sup> 바람운은 풍신이지만 고산국 역시 뽕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역풍의 신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자연적 조건이 구체화되어서 성립된 것이 <서귀본향본풀이>이지만, 여기에 구현된 혼돈과 질서는 <천지왕본풀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살오름을 분기점삼아 신과 인간이 어떠한 갈등을 보여주고 인간으로부터 숭앙받는가 하는 과정은 성과 속의 분기점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그것과 그다지 다른 의의를 갖지 않는다. 본풀이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현상이다.

(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창세서사시인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변형된 것이다. 다만 <퀘네깃도본풀이>를 위시해서 상자나 궤에 담겨서 버려진 도래자의 신격적 특성을 지녔다.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본래 주체적 신격으로 등장하는 설정이 인간에 의해서 부정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산을 담당할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인간인 임박사의 하소연을 해결하지 못한다. 아이를 어디에서 꺼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에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 명진국 따님아기이다. 이 두 신격의 경쟁담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꽃 피우기 경쟁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따님아기의 경쟁에서 꽃이 번성하게 된 명진국 따님아기가 승리한다. 꽃이 시들게 된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저승의 생불왕이 되어서 저승의 죽음을 관장하는 신격이 된다. 대결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인간에게 삶과 죽음이 있어, 인간으로 보이서는 부당하게 여겨지는 신화적 설정을 가져왔다. 생명이 많이 번성한다 하더라도 저승에서 차례로 죽음을 거두어 들이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화적 설정은 일본신화에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다툰 결과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것과 일치한다.<sup>13)</sup>

삼승할망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의 인세차지경쟁담이 변형되고 두 인물 사이의 기능이 치환된 결과라 판단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희미하게 제시된 이승과 저승의 분치 과정이 인간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국면을 맞이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형되었을 따름이다. 소별왕 : 명진국 따님아기 //~대별왕 : 용왕국 따님아기의 대립

12) 문무병, 같은 논문, 69면.

13) 김현선, 『동아시아신화비교연구』, 유인본, 32면.

적 설정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창세서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생겨난 다종다양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라)는 허용아기본풀이이다. (가)와 (다)의 신화소를 매개하면서 변형시킨 것이다. (가)와 (다)에서 이승과 저승이 분리되는 것이 궁극적 대립자였다면, (라)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신격의 출현을 말한다. 이승의 밤과 낮, 저승의 낮과 밤을 번갈아 오가는 존재자가 허용아기이다. 허용아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게 된 것은 허용아기의 살림 솜씨 덕분이다. 착실하게 베를 잘 짜고 집안 살림살이가 탁월해서 저승왕이 허용아기를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신화소에는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는 상황 설정이 돋보인다. 허용아기본풀이에는 <콩쥐팥쥐이야기>가 삽입되어서 자료의 문면이 이지러졌으나, 이야기로 구현되는 설화 자료에서 이 서사시의 본디 국면을 짐작하게 된다.

허용아기는 ‘저 고·량·부 삼성씨가 나오고 몇 사람이 나올 때’와 ‘하늘에는 해도 두 개 이제 달도 두 개 그러면 낮에는 막 이제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그러던 이제 시절’에 살았다.<sup>14)</sup>

천지개벽 시의 상황 설정이 제시되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불분명하던 시기에 생성된 서사시적 상황 설정이 돋보이는 자료이다. 허용아기본풀이의 우주 혼돈적 상황은 결코 가창자나 화자의 개인적 변이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제주도에서 채록된 다른 자료에서도 상황은 동일하게 발견된다.<sup>15)</sup> 곧 우주적 혼돈이 존재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허용아기는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지만 인간의 장난으로 인해서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지 못하게 되고 저승으로 끌려간다. 즉 이웃집 할머니와 어린 자식이 허용아기를 이승에 있게 할 요량으로 허용아기를 저승에 제때 못돌아가게 했는데 저승왕이 노해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영혼을 가져가 허용아기가 죽게 된다.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던 삶이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그 경계가 뚜렷해지고 혼돈이 정립된다. 허용아기의 죽음을 다른 신화에서 반복되지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sup>16)</sup> 예컨대 <강림차사본풀이>는 끊어진 매개과정을 연결시

14) 현용준, “허용아기,”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5) 임석재, “허용아기,” 『임석재전집 9』, 평민사, 1992, 283면.

키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가)·(나)·(다)·(라)의 분석 과정은 결국 분석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상호 연관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동일 유형의 변이형에 해당한다. (가)·(나)·(다)·(라)가 별개의 자료라 판단되면 (가)·(나)·(다)·(라)의 통시적 위상을 원시, 고대, 중세하는 틀에 넣어도 무방하겠으나,<sup>17)</sup> 만약에 (가)·(나)·(다)·(라)가 동일 유형에 근거한 변이 유형이라면 좀더 다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가)·(나)·(다)·(라)는 (가)가 기초가 되고 (나)·(다)·(라)가 (가)의 구조를 수용하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가)는 최초의 우주적 혼돈을 가정하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신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나)·(다)·(라)는 그 가운데서 특정한 국면을 나누어서 수용했거나 변형시킨 것이라 판단된다. 조동일교수의 논의처럼 원시서사시에서 창세서사시가 먼저인가 신앙서사시가 먼저인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모든 서사시의 전개에서 서사시적 견고성에 미루어 본다면, 창세서사시가 월등하게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 창세서사시의 변주가 (나)·(다)·(라)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공시적 유형의 변이형은 통시적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되는데, 창세서사시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변형된 것이 우리 서사시의 전개가 갖는 지속과 변화의 측면이 아닌가 한다. 신앙서사시가 선재했다고 하는 것은 북방문화인가 남방문화인가 하는 문화권의 선택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므로 신앙서사시와 창세서사시의 역사적 대체 과정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 3. 한국 구전서사시의 시기 구분

구전서사시는 제의적 연행에 의해서 지속성을 보장받는 갈래이다. 일정한 사제자 내지 전문적 가창자가 있어서 제의나 연행현장을 관장하면서 집단적 결속력과 구성원 사이의 총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힘쓴다. 단순히 구비산문적 형태를 취하지 않고 구비율문의 형식에 입각해서 서사시를 가다듬는 것은 구비율문의 기억적 용이

16) 비슷한 신화소로 『삼국유사』 「경덕왕 표훈대덕조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훈대덕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던 설정 역시 같은 관점에서 대단히 주목되는 자료이다.

17) 서론에서 인용한 조동일 교수의 논의가 곧 이에 해당한다.

성과 신을 찬양하는 형태로, 아주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제의 기간에 전문적인 가창자가 나서서 구성원의 시조나 천지 우주 만물의 근원을 노래로 하는 것은 서사시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구전서사시의 시기 구분은 집단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구전서사시가 어느 집단에 향유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나 주체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원시사회에서 구성된 서사시는 집단이 씨족이나 부족 단위 이상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씨족의 장이나 부족의 장이 서사시의 연행조건을 구성하는 인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원시사회에서 가장 긴요한 관심사는 혈통의 보존이나 단합이 아니었다. 더욱 지대한 욕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생식적 욕구와 자신들이 처한 자연적 재해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삶을 아직껏 존속시키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서사시의 흔적을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방증적 사례를 구실삼아 원시서사시의 형태를 추측하는 일은 가능하다. 문자가 없는 원시사회의 조사보고서나 사례를 미루어보건대 일단 제의적 고정성이 이루어지는 전쟁의례, 결혼의례, 성인식의례, 장례의례 따위에서 끊임없이 서사시를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모두 같지는 않겠으나, 특히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음식의 원천이 되는 동물이나 동물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동물이 인간에게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문제의 국면이 서사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애버리진족의 늑은이가 바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동물과 자신의 씨족을 찬양하여 서사시로 읊던 장면은 특히 필자의 인상에 강하게 남아 있다.<sup>18)</sup>

원시서사시의 유적으로 <울주군 언양면 반구대 암각화>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이 암각화는 여러 가지 추정과 논설이 있으나,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암각화에 그려진 동물 그림이 일순간에 전체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로 그려져 나갔으며, 그리거나 새기는 방법도 음영

18) KBS 1TV에서 방영한 <세계결작다큐멘터리> 1996년도 자료에서 이러한 광경을 보았다.

19) 김열규, “침묵하는 신화들 1·2,”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108~109면.

김열규교수가 흥미로운 추정을 했으나, 필자는 서사시의 관점에서 이 암각화의 흔적을 재조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논의의 각도가 다르다.

김원룡·안휘준, 『한국미술사』, 서울대출판부, 1994. 이 논저의 글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범에서 부조범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구대가 주요한 제전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곳에도 신화적 자취를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려진 것들이 고래, 범, 사슴, 인간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이미 포획된 사냥감과 장차 잡으려는 사냥감 등도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더구나 동물을 죽이는 장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 암각화가 그려진 반구대는 어떠한 제의를 치르던 곳인가? 그곳은 인간이 동물들에게 서사시를 바치기 위한 제의를 치르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물은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인간에게 먹이를 제공하지만, 인간은 동물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위무한다. 인간과 동물의 계약은 아주 치밀한 제의를 통해서 성립된다. 특히 제의의 소종래가 설명되면서 서사시의 연행은 필연성이 확보된다. 동물은 인간에게 신으로 작용된다. 신이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먹이가 되거나 인간의 두려움을 달래줄 때에 그들은 인간과 가장 친근한 관계가 된다.

원시서사시는 동물이 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우리 서사시에는 이러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지만, 주변의 소수민족서사시에서는 그러한 면모가 명확히 확인된다. 특히 아이누 지역의 서사시는 그러한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대서사시는 원시서사시의 세계가 철저하게 극복된다. 고대서사시는 뛰어난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대서사시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고대 건국신화를 통해서 고대서사시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고대서사시의 뚜렷한 징표는 추상적 실체인 하늘, 물, 태양, 달 등이 신격으로 등장한 점이다. 구체적 동물신보다는 강력한 지배집단의 상징체로서, 보다 멀리 있고 보다 통일된 총체적 성격의 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족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연합체적 모색이 필요했으니 이 과정에서 강력한 통일체를 으뜸으로 삼게 된다.

고대서사시의 주체는 강력한 우주적 신격과 연계된 영웅이기 십상이다. 신성성의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명왕신화는 천제-해모수-동명이라는 삼단 구조를 지닌다. 하늘에 머무는 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 지상에 머무는 자 등이 삼단 구조의 핵심적 인물이다. 이 계통은 절대적 신성과 영웅적 능력을 보장받지만, 다른 모계 혈통에서는 또다른 이질적 신성성을 다른 한 가닥으로 삼고 있음을 특별히 기억할 만하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인 해모수와 땅과 물 사이를 연결시키는 자인 하백의 대결담은 여러모로 주목된다. 이들의 대결은 둔갑담인데, 사실은

이 둔갑담이 원시서사시의 흔적이라고 여겨진다. 원시서사시에서 주목되던 동물신의 자취가 강력한 우주적 통일신의 후예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원시서사시 위에 고대서사시의 층위가 덧붙여졌음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고대서사시의 예술적 자취로 고구려 고분벽화나 무덤 부장품을 거론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천상계와 지상계의 그림은 <울주군 언양면 반구대>의 벽화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그림 자체의 비교로도 가치가 있으나 서사시의 세계관적 기반이 달라졌음을 뜻하기도 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원시서사시와 고대서사시의 이행기서사시로 뚜렷한 증거는 <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웅과 웅녀의 결합이 핵심적 골격을 이루는데, 인신과 동물신의 결합, 천신과 지상신이 결합이 이행기적 자취를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례이다. <단군신화>는 <주몽신화>와 삼단구조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이행기적 징후를 확실하게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발견되는 창세서사시의 흔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창세서사시는 창세과정에 필요한 우주의 혼돈과 정립의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데,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는 설정과 풍백·우사 등으로 하여금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따위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창세서사시의 핵심적 골격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는 원시서사시와 고대서사시의 이행기를 보여주는 서사시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하겠다.

고대서사시는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조의 유래 방식에 따라서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조가 땅에서 솟아나기, 시조가 바깥에서 도래하기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sup>20)</sup> 이 세 가지 유형은 시조유래담의 긴요한 방식이면서도 후대신화나 서사시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sup>21)</sup> 적어도 <괘네깃도본풀이> <서귀포본향본풀이>라는 제주도 서사시는 원시에서 고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시의 적절한 범례이다. <괘네깃도본풀이>에서 강남천자국의 백주또할망이 제주도 고부니마을에 솟아난 소로소천국을 찾아와 결연하다는 설정은 대단히 주목되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하늘의 존재자와 꿈의 화신인 존재자가 결연하는 것

20) 조동일, “시조도래담의 중세화의 길,” 유인본·조동일교수가 이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를 편 바 있다.

21) 김현선, “민속문학에 나타난 음양관,” 1997년 5월 29일. 국립민속박물관 주최 『한국인의 음양관』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세 가지 유형의 시조유래담이 어떻게 복합되고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논의했다.



과 같은 내용이다. 백주또할망은 농사법을 알고 있는 신격이나, 소로소천국은 사냥이나 육식을 하는 존재자이다. 둘 사이에 태어난 퀘네킷도가 용왕국을 거쳐 강남천자국에서 전승을 거두고 다시금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되돌아온다는 결말이다. 이러한 설정은 <퀘네킷도본풀이>가 시조가 바깥에서 도래한 것이라는 고대서사시의 공식을 따르면서도 기본적 신격에 있어서 동물신적 면모와 인간이 공존하는 이행기적 특징을 갖는다.

<서귀포본향본풀이>는 창세서사시적 특징과 우주 천문현상의 신격화라는 점에서 대단히 고대서사시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바깥에서 유래한 신격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서사시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서귀포본향본풀이>는 이행기적 특징을 갖는 서사시이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서사시는 고대의 외지에서 도래하는 시조유래담이 적절하게 선택되면서 쓰인다. 가장 뚜렷한 사례는 <균웅본풀이>의 경우이다. <작제간신화>를 연상시키는 이 서사시는 문명권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사시로 선택된 것이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서사시의 원천으로 짐작되는 것은 이밖에도 <거타지설화> <선도산성모신화> 등이 있다. 고대적 신화의 잔상이 유지되면서 하늘이 아닌 더 큰 외지의 특성을 담보한 신격이 나오는 것은 고대에서 중세서사시로 이동한 사례이다.

중세서사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신성성을 보장받는 것이 외래종교인 불교의 신성함과 토착적 신격이 결합된 신불(神佛)에 의존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불교가 중세서사시에 침투하면서 다단한 변화가 서사시에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이 자리에서 길게 그러한 사정을 정리할 수 없으므로 핵심적 사항만 제시해서 다루기로 한다.

- (가) 신격의 명칭, 면모 따위가 불교적으로 대체된 사례
- (나) 무속서사시의 체계에 불교적 세계관이 조합된 사례
- (다) 불교적 원천이 무속서사시에 작용한 사례

(가)의 적절한 사례가 <제석본풀이> <창세가> 등이다. 고대서사시의 열개가 유지되면서도 본래의 고유 신격은 이면적으로 잠재하고 외래의 신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로 중세서사시의 적절한 사례가 된다. 고대서사시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중세식 사고를 거치면서 (가)와 같은 변모를 겪는 것이다. <창세가> 역시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는 고대서사시에 불교적 저승관이 접합된 사례인데, 가장 적절한 본보기가 <바리공주>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강림차사본풀이>가 더 있다. 저승의 관념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원시서사시나 고대서사시는 존재하지 않는데, 중세시대가 되면서 불교의 저승 관념이 도입되면서 저승의 실상이 표면적으로 구체화되어 묘사되는 것은 불교의 저승관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다)의 경우에는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러한 흔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공본풀이>·<세경본풀이>·<사만이> 등이 이에 적절한 사례이다.

중세서사시의 신이한 자리에 불교적 신격이 파고 드는 사례를 말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과형의 중세서사시일 따름이다. 오늘날 남아 있는 공식적 서사시의 자료에 근거해서 중세화 과정을 겪는 서사시의 단계를 추정하게 된 결과일 뿐이다. 이와 같은 경과형의 중세서사시의 단계로 유교를 거론할 수 있으나, 유교의 음양오행설은 서사시의 골격을 훼손하고 교술화하는 역기능을 대단히 드넓게 수행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구비시가 전반에 폭넓게 등장하여 <치국잡기>·<지두서>·<단연주> 등의 교술적 삽입가요가 탄생한다.

중세서사시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본질적 측면에서 고대서사시의 자취를 격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신의 관념이나 개념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도 풍부한 무속신격을 창출하는 구실을 한다. 이외는 다르게 중세신격이나 고대신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겠으나, 무속적 단합성이 꺾이는 서사시에서 과연 가능한 것이었겠는가 의문이다. 무속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서사시가 매개되어 생존 전략적 차원의 변신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의 업적이 서사시의 도달점이기는 하되 인간적 욕망과 갈등을 겪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서사시가 등장한다. 신적 위업과 세속적 욕망 사이의 갈등과 부조화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시가 갖는 뚜렷한 특징이라 하겠다. 오늘날에 전승되는 무속서사시의 대부분은 찬신과 인간적 욕망 구현의 경계면을 넘나드는 이중적 면모를 지닌다. 가창자인 무당은 이원적 태도를 지녀 신을 찬양하면서도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속셈을 차리는 결과를 낳는다. 무당이 돈벌이에 치중했다는 『무당 내력』의 창부거리조는 서사시의 일대 변혁을 가능하게 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시에서 주목되는 현상이 있다. 서사무가의 경우에

전설, 민담 등의 풍부한 원천을 활용하면서 서사시의 내용을 대폭 물갈이 하거나 기존의 신화적 골격을 파괴한다. 이 시기의 무속서사시는 신화의 외형만 있을 따름이고 그 실제 내용은 민담과 전설로 아로새겨진다. 청중에게 공감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장 적절한 사례가 제주도의 <삼공본풀이>나 <칠성풀이> 및 <성주풀이> 등이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민담 가운데 ‘내복에 산다’·‘애운학’ 등의 민담이 <삼공본풀이>나 <칠성풀이>에 삽입된다. 이들은 서사시의 견고성 속에서나마 유지될 수 있는 이야기에 그친다. 원시, 고대, 중세시기까지 이어지던 서사시의 유형적 반복성과 전개는 이 시기에 크게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서사시의 골격에 원시서사시가 삽입되거나 원시서사시에 전설이 개입되기도 한다. 전자의 사례는 창세서사시의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제석본풀이>에 끼어든 것이고, 후자의 사례는 창세서사시에 <장자못전설>이 끼어든 것이다. 동시에 서사민요 ‘이사원네 딸애기’나 서사무가인 <문굿>이나 <세경본풀이>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양산백전’ 유형의 이야기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시 가운데 중세적 명분론과 근대적 욕망이 갈등하는 것도 있었으니 이들의 서사시는 그 집단이 판이하게 달랐다. 먼저 가부장적 권위에 얽매어 고통받는 여성들이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서사시인 서사민요가 그것이다. 서사민요는 개인적 갈등이 서사시의 골격을 이룬다. 이에 반해서 광대들이 주도적 구실을 한 광대서사시인 판소리는 무속서사시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판소리는 서사무가에 커다란 빛을 지고 있으면서도 신을 제거하고, 신의 자리에 양반적 권능을 지닌 인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상층의 양반과 하층의 민중이 겪는 사회적 갈등을 담으면서 서사무가와 결별한다. 개인적 차원의 한풀이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차원의 신명풀이가 강조되면서 종래에 보던 것과는 다른 예술적 비약이 판소리에서 일어난다.

판소리와 같은 시기의 서사무가는 모두 민담이나 전설을 서사시라는 형식에다가 내용으로 담으려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이 공통점은 의미의 지향에 있어서 전혀 판이한 결과를 낳는다. 판소리에서 수용한 민담과 전설은 거둬 광대에 의해서 가다듬어지면서 청중에게 이와 같은 분위기에 어긋나는 인물형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 정보량과 함께 정서적 환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반면에 서사무가에 수용된 민담과 전설은 신의 권능을 보장하지 못하고, 신과 인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유지하게 하고, 마침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서사시의 담당층이 달라지면서 공통적 내용이 색다른 결과를 낳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요컨대 한국 구전서사시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원시서사시
2.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서사시
3. 고대서사시
4.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서사시
5. 중세서사시
6.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서사시
  - 6.1. 서사무가
  - 6.2. 서사민요
  - 6.3. 판소리

#### 4. 한국 구전서사시의 질적 비약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판소리이다. 판소리의 출현은 구전서사시의 충실한 자산을 받아서 비약적 발전을 획득한 사건으로 특별히 기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판소리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판소리를 높이 평가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의 질적 비약은 세 가지 각도에 이룩되었다.

첫째, 문학적 측면에서 장편서사시의 전통을 답습하되 종래의 장편서사시와는 다르게 언어, 구조, 주제 등에서 혁신을 꾀했다. 판소리는 유식한 한문투와 무식한 구어체가 공존한다. 이 양극단의 사이에 일상어에서부터 각 극단으로 펼쳐 놓을 수 있는 다층위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 언어의 도가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생생한 현실을 담고 있다.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는 철저하게 이야기의 본줄기와 곁가지가 나란히 가다가도 어긋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양면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리와 창 의 교체·반복은 대단히 요긴한 구실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은 아니리와 창으로 구분되었으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니리는 안열, 안이리, 안의리 등의 다채로운 이칭을 지녔고, 아니리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율적 아니리, 장단이 있게 하는 아니리, 시창처럼 읊조리는 도섭에 가까운 아니리 등으로 다양했

으나, 이제는 말로 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창과 대비되는 요소로 쓰이면서 이면의 창출이나 본줄기와 어긋하는 결가지를 대는 특이한 기능을 하였다. 평면적 구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아니리와 창은 대단히 긴요한 구실을 했다. 또한 판소리의 아니리와 창은 서사무가 구연 시에 앞은조달(조달)과 창 또는 섬모리와 창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판소리는 이면 창출이 가능하도록 3인칭과 1인칭의 입체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서사무가는 3인칭적 서술자에서 3인칭적 동반자로 이동하는 구실을 한다. 악사에게 어떠한 대목을 청하는 기능에 멈추기 때문이다. 물론 동해안의 섬모리와 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으나, 엄격한 배분이라 보기 어렵다.

요컨대 판소리의 아니리와 창은 입체적 구조와 주제를 창안하는데, 대단히 긴요한 문학적 수단이 되었다고 하겠다. 주제는 중세적 주제와 근대적 주제임은 더 말할 나위없다. 그래서 흔히 '기생인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이 갈등을 빚어내는 주제의 양면성을 창출하게 된다. 이것은 구전서사시의 커다란 성취이다.

둘째, 판소리는 음악적 측면에서 종래의 구전서사시를 크게 넘어섰다. 판소리가 음악적으로 탁월한 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성음, 시김새, 부침새 등이 어울어져 서사무가나 서사민요와 다르게 음악적 성취를 보였기 때문이다.

성음은 서양음악적 용어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성음은 소박하게 목소리라는 뜻이지만, 판소리에서는 선율의 조성이나 선법적 변화를 지칭한다. 이것이 뛰어난 현상을 '성음이 분명하다'고 한다. 우조면 우조, 계면조면 계면조 등을 확실하게 구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용어도 갖추고 있으니 성음 구사 시에 '외갓집목' 또는 '엇칭'이라는 말이 있으니 계면조에서 우조로 가거나 우조에서 계면조로 뒤섞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와는 달리 '가구먹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C장조에서 G장조로 이동해서 key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각구먹질'은 피리의 구멍을 각자 구멍에 따라 읊기는 것을 말한다.

시김새는 선율적 장식이나 기교를 뜻하는 말이다. 기악에서 말하는 농현이다. 토속민요나 원래의 유흥민요에서 단순하게 구사되던 시김새가 판소리에서는 극단적으로 발달해서 정교하게 부침새를 구사한다. 철종 때의 명창 정창업이 '불갈질'을 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김새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된다.

부침새는 리듬적 기교를 말한다. 성음 높음과 시김새 높음이 선율적 기교와 관계된다면, 부침새는 풍물굿, 춤, 사물놀이 따위에서 특별하게 발달하는 리듬적 기교를 말한다. 부침새 기교는 목이 나쁜 가창자가 특히 발달시켰으니 사설과 제 장단에

의미있게 떨어지는가 안떨어지는가 하는 기교를 말한다. 사설과 장단이 제대로 떨어지면 흔히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판소리는 서사무가, 서사민요 등과는 다르게 성음, 시김새, 부침새를 조화롭게 연결시켜 수준 높은 음악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상층의 가곡성 우조나 도드리장단을 수용해서 수준높게 발달시켰다.

위의 사실을 쉽사리 이해하기 위해 서름조로 부르는 구전서사시의 방식을 비교하기로 한다. 예컨대, 서사민요 가운데 ‘홍글소리’가 있다. ‘홍글소리’는 민요의 서름조를 나타내는 대표적 민요이다. 이 소리는 예술적 기교가 섞이지 않은 단순한 서름조이다. 그런데 판소리에서 서름조는 예술적으로 가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홍글소리’의 그것과 다르다. 판소리의 서름조는 통곡에 가깝게 장단을 던져 놓고 슬프게 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계면조 바탕을 선율 하나하나를 긴장시켜 부르는 방식이 있다. 서사민요와 판소리의 서름조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판소리는 예술적으로 승화된 음악이다. 이것이 예술적 비약의 요체이다.

셋째, 연행예술의 미학적 혁신을 꾀한 것이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짜임새가 완벽한 ‘눈’을 후반부에다 배치해서 문학적 짜임새와 음악적 짜임새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것은 흔히 집단적 신명풀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연행예술의 형식이 이처럼 진행된 것은 민중예술의 기본적 특징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설의 이면이 존중되어 승화된 결과이다.

한국 구전서사시는 역사적 사명을 판소리로 마감하게 되었으니 이상과 같은 판소리의 요소가 정면에서 엿쉬이면서 가장자인 광대가 노력한 결과이다. 판소리를 통한 구전서사시의 질적 비약은 이루어졌으나, 구전서사시의 새로운 창출은 이어지지 않았다. 구전서사시가 오늘날의 형식으로 부적절한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5. 마무리

이 글은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밝히고자 하는 소망 하에 마련된 것이다. 구전서사시인 서사무가, 서사민요, 판소리를 일관된 관점에서 역사적 시기로 구분짓는 일을 시도했으나, 다소 영성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왕에 조동일교수에 의해서 비교적 확실한 구전서사시의 통사 체계가 제시된 바 있었기 때문에 본고는 이 체계의 대국면은 인정하면서도 부분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독자적 시기 구

분을 덧붙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구전서사시의 사적 전개는 구전서사시의 공식적 유형이 지니는 체계적 변이형을 검토해서 체계적 변이형에 입각한 통사적 위상을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천지왕본풀이>·<서귀포본향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허웅애기본풀이>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니 <천지왕본풀이>가 풍부한 신화소를 갖추고 있어서 나머지 서사시가 그 구조를 수용해 변형시켰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므로 창세서사시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이 새삼스러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구전서사시의 시기 구분은 원시, 고대, 중세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각 시기마다 이행기가 설정되어야 사태의 실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해서 말하였다. 원시와 고대의 서사시는 같은 유형의 지속과 변천이 있었으나, 중세 시대 서사시부터는 전혀 색다른 종교와 만나면서 커다란 변화가 서사시 자체에 생겼고, 중세 이후의 시기에는 새로운 서사시가 창출되었다고 규명하였다. 구전서사시의 견고성은 유지되었으나, 여기에 담기는 내용이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 차이가 났다고 말하면서 신이 떠나기 위해서 서사시의 역사적 전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 이 점을 명시하였다.

구전서사시의 정점은 판소리의 출현이라고 말했다. 판소리의 출현은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질적 비약을 이룩하였는데, 문학, 음악, 연행예술의 측면에서 그렇다고 했다. 문학적 측면에서 언어, 구조, 주제가 혁신의 요인이 되었다고 논증하였다. 음악적 측면에서 성음, 시김새, 부침새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인 요인이라고 했다. 연행예술적 측면에서 독창적 신명풀이 형식이 독창적으로 창출되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많은 한계가 있다. 구전서사시만 근거해서 다루다 보니 구전서사시와 기록서사시의 관계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또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문스럽기도 하다.